Ⅲ. 2015년 도정 운영방향

1 도정의 여건과 전망

○ **광복과 분단 70주년**이 되는 해로서 국가는 물론 지방차원에서도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서 남북관계 변혁의 적기로 활용 필요

○ **민선 지방자치 출범 20주년**이 되는 해로서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고, 지방 간의 상생·협력 강화와 성숙한 자치의식 제고 필요

○ **민선 6기** 도정목표 '청년이 돌아오는 전남'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**실질적인 원년**으로서 실행계획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해

□ **(지역경제)** 국내·외 **경기침체 현상은 지속**될 전망이며, 빛가람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연관기업 유치에 유리한 여건 조성

* '15년 경제성장률 3.8% 내외, 취업자수 45만명('14년 대비 △8만명) - 기획재정부

○ **우리 도 주력산업**인 석유화학·철강·조선 등은 중국 및 신흥국과의 경쟁 심화, 일본 엔저정책 지속 등으로 인해 고전할 전망

- '14년 대비 성장률(산업연구원) : 철강 2%, 석유화학 △2.7%, 조선 0.8%

○ **빛가람혁신도시**에 한국전력, 농어촌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연관 기업유치, 일자리 창출의 호기가 될 전망

- (한국전력) 2020년까지 에너지 밸리 500개 기업 입주
- (전발연) 2020년까지 협력업체 대체 인력 수요 2,200명 예상

○ 정부의 창조경제사업 일환으로 **'자동차 튜닝산업'** 육성 의지 가시화

- 국내 튜닝시장 규모(전경련) : ('14) 0.5조원 → ('20) 4조원

□ **(농·수산업)**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수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**'저비용·고소득 농수산업'** 구조로의 전환이 과제로 부상

○ 특화작목 생산비 절감, 고품질 농·축·수산물 생산, 융·복합 6차산업 육성 등에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과 농·어업인의 실천 노력 필요

○ 구제역,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**동물 복지 실천, 양식어장 환경 개선** 등은 FTA 대비 경쟁력 강화 과제로 대두

□ **(문화관광)** 용산~송정 간 KTX 개통, 광주 하계 U대회,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**국내·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여건 조성**

○ 저비용 항공사의 무안공항 ↔ 중국 간 정기성 전세기 취항 확대가 예상되고, 정부의 지방 관광 확대 정책 등으로 관광객 증가 전망

○ 한전, 문화예술위원회 등 **ICT 기관(7개)이 혁신도시로 이전**함에 따라 관련 산업 발전의 좋은 기회로 활용 필요

□ **(보건복지)** 타 지역에 비해 취약계층이 많고, 복지 수요층 증가, 기초연금 지원 단가 상승 등으로 **복지 재정 압박은 커질 전망**

* 기초생활 수급자 : 76천명, 전남 인구의 4.0%(전국 평균 2.6%)
* 의료급여 수급자 : 84천명, 전남 인구의 4.5%(전국 평균 2.8%)

○ 노인인구가 도 전체 인구의 20.1%로 **초고령사회 진입**('14. 8.)함에 따라 맞춤형 노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

- 65세 이상 노인인구 : ('09) 344천명(도 인구의 17.9%) → ('14) 384천명(20.1%) 증 11%

○ 한의학 산업 육성 전문기관 설립과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등으로 **통합의료산업** 기반 구축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

2 도정 운영방향

목표 생명의 땅,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

방침

- 활기있는 지역경제
- 소득높은 농축어업
- 매력있는 문화관광
- 온정있는 도민복지
- 소통하는 창의도정

역점 시책

-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산업 육성
- 농·축·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
- 매력있는 관광·문화산업 육성
- 활기 넘치는 지역개발 촉진
-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·관리
-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
-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 구현